



2024학년도 특수교육 안내 다름다운 이야기

우)54018 군산시 중앙로 230 (교무실)063-445-3664 (행정실)063-445-1680 (Fax) 442-2555



안녕하십니까? 학부모님의 가정에 행복이 가득하기 기원합니다.

4월 20일은 제44회 장애인의 날입니다. 장애인에 대한 이해를 깊게 하고, 장애인의 재활 의욕을 고취하기 위한 목적으로 제정된 기념일입니다.

점점 더 다양해지는 사회에서 겉으로 드러나는 모습만으로 다른 사람에 대한 편견과 차별의 마음을 갖기 보다는 다른 사람을 배려하고 도와줄 때 느낄 수 있는 기쁨을 아는 군산서초 학생이 되길 바랍니다.

올해는 다양한 모습으로 살아가는 장애인의 삶을 그런 영화와 그들과 함께 자유롭게 떠날 수 있는 무장애여행지를 소개해 드립니다. 살펴보시고 조금이나마 그들을 이해할 수 있는 소중한 시간이 되길 바랍니다.

무장애여행지로 떠나볼까요?



무장애 여행지란? 베리어프리관광, 접근 가능한 관광, 유니버설 디자인 관광 등이 혼재된 신체적 제약 때문에 관광활동을 자유롭게 하지 못하는 관광약자를 대상으로 한 여행을 말해요,
지금부터 무장애 여행지 3곳을 소개해드릴께요!

'산책하기 좋은 여행지'

01 관악산 무장애숲길

서울 관악구 | <https://www.gwanak.go.kr/site/gwanak/05/10503020400002016051205.jsp>



여행지 소개

장애인 및 노약자 등 보행약자들도 부담없이 산을 즐길 수 있도록 만든 경사가 완만한 대크형 숲길입니다.

편의정보

사이쉼터, 등의자 및 피크닉테이블 등 휴게시설을 설치하여 언제든 쉬어갈 수 있어요!

©관악구청

02 진주성과 국립진주박물관

경남 진주시 남강로 | <http://www.jinju.go.kr/tour.web>

여행지 소개

푸른 남강에 비친 촉석루는 보석 같고, 울창한 숲에 뒤덮인 진주성 공원은 찾는 것만도 최고의 휴식입니다.

편의정보

전체적으로 훨씬 더 넓어져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습니다.
담방로를 가로지른 수로의 덮개를 판재로 마감해 훨씬 더 넓어져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습니다.



©한국관광공사, <https://access.visitkorea.or.kr/>

'춘천이라 쓰고 봄이라 읽는다'

03 남이섬

강원도 춘천시 남이섬길 | <https://namisum.com>



여행지 소개

남이섬은 다양한 문화행사, 콘서트 및 전시를 꾸준히 개최해 오고 있으며, 어린이들에게는 꿈과 희망을 제공해 주고 있는 자연생태 문화공간입니다.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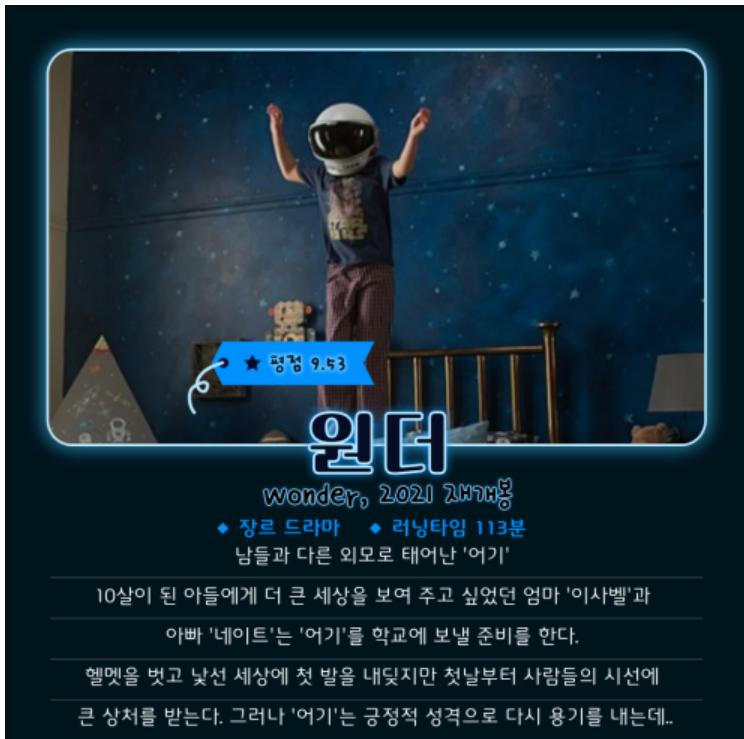


편의정보

남쪽으로는 푸른 숲, 바깥으로는 푸른 강이 물결치는 남이섬 둘레길은 단단한 흙길이라 훨씬 더 바퀴에도 호의적이랍니다.

©한국관광공사, <https://access.visitkorea.or.kr/>

장애인의 날 관련 영화 추천



10살이 된 아들에게 더 큰 세상을 보여 주고 싶었던 엄마 '이사벨'과
아빠 '네이트'는 '어기'를 학교에 보낼 준비를 한다.
헬멧을 벗고 낯선 세상에 첫 발을 내딛지만 첫날부터 사람들의 시선에
큰 상처를 받는다. 그러나 '어기'는 긍정적 성격으로 다시 용기를 내는데..

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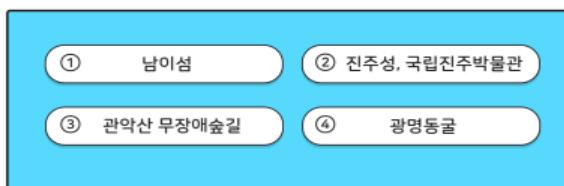
어느 날 쇼야의 따분함을 앓아갈 전학생이 나타났다. 니시미야 쇼코,
그 아이는 귀가 들리지 않는다고 한다. 쇼야의 짖궂은 장난에도 웃고만 있던 쇼
코는 결국 괴롭힘에 전학을 가고, 쇼야는 외톨이가 되었다.
6년 후, 쇼야는 마지막으로 쇼코를 찾아간다.

학부모 퀴즈 행사 안내

1. 신체적 제약 때문에 자유롭게 여행하지 못하는 관광
약자를 대상으로 누구든 가고 싶은 곳을 갈 수 있도록
구성해 놓은 곳을 무엇이라 할까요?



2. 무장애 여행지로 소개된 곳 중 춘천에 위치한 곳으로
안쪽으로는 숲, 바깥으로는 강이 있으며,
둘레길은 탄탄한 흙길인 이 곳은 어디일까요?



3. 다음은 영화 '원더'의 대사 중 하나입니다. 투쉬만 교장 선생님이
줄리안의 심한 장난에 부모님을 호출하였으나, 자신의 자식만
옹호하던 부모에게 일침을 날리면서 한 명대사입니다. 빈 칸에
알맞은 말은 무엇일까요?

투쉬만 교장선생님 :외모는 바꿀 수 없습니다.
그러니 우리의 ○○을 바꿔야죠.



초성 힌트: ㅅㅅ



장애는 개인이 가진 하나의 특성일뿐
그 사람의 전부가 아닙니다.
하지만 일상에서 장애인을 만났을 때
우리는 사람보다 장애를 먼저 보고
장애를 그 사람의 전부로 생각하는
경우가 많습니다.

드라마 <우리들의 블루스> 속의
장면을 감상하며, 장애를 대하는
우리의 태도를 생각해보는 시간이
되었으면 좋겠습니다.



우리들의 블루스
'만일 나라면'



우리들의 블루스
'만일 너라면'